

목포시, 해상풍력 도시 성큼...미래 먹거리 선점 박차

박홍률 목포시장이 최근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목포신항 현장을 방문하고, 목포시가 국내 해상풍력 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김원이 국회의원, 박우량 신안군수, 조성오 목포시의회의장을 비롯해 40여명의 도·시군 의원 등 지역 인사들이 모여 전남의 해상풍력 산업의 발전과 상생협력 방안을 도모했다.

현재 목포신항 부두에는 국내 최초의 민간주도 해상풍력 사업(전남 해상풍력, SK E&S)의 터빈, 블레이드, 타워 등 99MW(메가와트) 규모의 기자재가 적치되어 있으며, 이달부터 자은도 해상으로 운송되어 오는 12월 준공 및 상업운전이 예정되어 있다.

목포신항은 국내에서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춘 해상풍력 지원항만으로, 기자재의 생산과 조립, 해상운송은 물론 R&D(연구개발)와 기업

지원 등 사업 전주기를 지원하는 허브항만으로 산업 생태계를 선도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세계 1위 터빈제조사인 '베스타스'와 글로벌 해운사 '머스크'와 3,000억원 규모의 터빈공장 설립 투자협약이 체결된 바 있고, 6월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에 신항 12만 6천여평이 지정되는 등 그 가치가 빛을 발하고 있다.

박홍률 시장은 "해상풍력이 우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세대에게 비전과 희망을 제시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대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속에서 목포시를 중심으로 한 전남 서남권이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한계에 봉착한 지역에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태 기자



박홍률 목포시장이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목포신항 현장을 방문하고, 목포시가 국내 해상풍력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공유했다. /목포시 제공

신안 교통안전협의체 실무협의회 2차 회의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최근 '신안군 교통안전협의체 실무협의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통안전 실무협의회의는 사고 감소를 위해 실질적 교통정책을 추진하는 지역 현장 13명의 민·관·경 실무위원으로 구성된 협의의 기구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호기, 안전표지 등 노후 교통시설물 일제 정비 △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 방안 △찾아가는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차민손 교통안전 홍보 등에 관해 논의하고, 이와 관련해 안전한 교통사고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예산 확보 등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거리 및 도서지역 이동불편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신안군 특성을 고려해 고령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도 같이 추진하자고 뜻을 모았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교육부터 면허 갱신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면허 갱신 순회 교육을 함께 실시해 군민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흥근 기자

영암군, 청무화과 '집니카' 재배 청신호

영암군의 청무화과 '집니카' 재배에 청신호가 켜졌다.

우승희 영암군수가 최근 삼호읍 삼포리 한 무화과 농가를 방문해 청무화과 새 품종인 집니카의 연구 재배 현황을 살폈다.

이 농가는 영암군농업기술센터의 무화과 연구사업 실증 현장으로, 지난해 집니카를 보급받아 재배하고 있다.

집니카는 영암 무화과 생산의 95%를 차지하는 홍무화과 '승정도 후인' 품종에 비해 추위에 강하고, 총채벌레 피해도 덜한 동시에 유통과정에서 쉽게 물러지지도 않아 대안으로 여겨져 왔다.

이날 점검에서 수확 초기 집니카의 평균 무게가 78g, 최대 무게가 100g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존 청무화과 '바나네'보다 평균 10g 높고, 홍무화과 평균인 87g에도 손색이 없는 무게여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우승희 영암군수와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은 현장에서 연구결과를 활용한 농가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앞으로 영암군농업기술센터는 방문 농가 등 실증 현장에서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생산성 높은 고품질의 청무화과 재배법을 강화하고, 유통 취약점을 보완하는 등 후속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소비자에게는 더 맛있고, 농가에게는 더 높은 소득을 주는 무화과 개발을 영암군은 끊임없이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암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18년 해외 도입 무화과 30여 종의 품종조사에서 시작해 우량 청무화과 품종 선발 및 지역 적응성 시험을 진행했다.

지난해부터 농가에 청무화과 품종 '집니카'를 보급해 재배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이문수 기자

함평군, 신활력혁신센터·농업인회관 첫삽

함평군 농업인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농업인 간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될 '신활력혁신센터·농업인회관'이 첫삽을 뚫었다.

함평군은 "함평군 신활력혁신센터·농업인회관 착공식이 전날 오후 황소주차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상의 함평군수, 이남오 함평군의회 의장 등 함

평군 주요인사 및 농협중앙회 함평군지부장, 각 농협 조합장, 박종두 한국후계농업경영인 함평군연합회장, 신활력플러스사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이상의 함평군수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시삽식과 기념촬영 등이 이어졌다.

신활력혁신센터·농업인회관은 총사업비 66억원을 투입해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며, 내년 10월 준

공된다. 센터 1층에 로컬푸드 직매장, 2층에 청년농업인 교류센터와 체험·교육실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로컬푸드직매장은 신선한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지역 농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업인회관은 농업인들 간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활용돼 향후 함평군 농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문수 기자

강진, 4차산업혁명 크리에이티브 워크숍

강진군은 최근 '4차산업혁명 크리에이티브 워크숍'을 개최하며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2기 4차산업혁명 전략수립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4차산업혁명 전략수립위원회 정기 회의를 겸해 진행되었으며, 기존 위원회의 임기 종료에

따라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과 함께군의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큐리어드의 지병석 본부장이 위원장으로, 이즈윌의 이체를 대표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드론, 스마트시티, 마케팅, 전기차, e커머스, 스마트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7명의 신규 위

원이 위촉되었다.

지병석 위원장이 주재한 회의에서는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특히,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대중교통의 효율성 제고,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 마련, 인적 자원에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 도입을 통한 지속 가능한 행정구축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박종욱 기자

무안군, 영양교육 성료

무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정해옥)는 어린이들의 아침 식사 결식률을 낮추고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최근 약 한 달간 영양교육 및 요리교실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영양교육은 '아침밥을 먹어야 요리'라는 주제로 센터 등록된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활동시설 21곳 어린이 258명을 대상으로 아침밥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고 아침밥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달걀주먹밥 만들기 등 요리활동을 진행했다.

정해옥 센터장은 "아침밥은 성장기 어린이들의 두뇌 발달과 건강한 발육을 위한 중요한 식품이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습관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민재 기자

그린알로에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vera gold*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